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논술

Section 02 경영경제계열

경영경제계열 모의논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 천사가 그리워하면서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죽는 일, 곧 유한성의 경험이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예기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은 유한성의 존재이면서 유한성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기억과 상상을 융접한다. 과거와 미래를 접목하는 동물계 유일의 시간 형식을 인간은 갖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천사 앞에 내놓을 위대한 자랑거리는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순간성의 조건과 유한성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남미 작가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가 나이 팔십을 넘기면서 쓴 시에 '순간'이라는 것이 있다.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으로 시작되는 시다. 그는 자신의 한 생이 '순간'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 다음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그 새로운 생을 어떻게 달리 살아 볼 것인가.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 / 완벽해지려고 버둥거리지 않으리."를 통해 생의 순간적 단회성을 그 단회성을 넘어서는 연속의 상상과 접합하고 이미 한 생의 끝자락에 선 자의 기억은 지나간 생에 대한 성찰(실수하지 않으려고 왜 그토록 버둥거렸던가) 위에서 다른 삶의 방식(더 많이 실수하리)을 제시한다. 재탄생의 상상력은, 물론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 상상력이 과거의 기억, 혹은 지나간 삶에 대한 성찰과 결합해 있다는 점이다. 기억과 상상의 이런 접합은 인간이 처한 유한한 조건으로부터 나오고, 그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게다가, 그 연속의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유한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완벽 추구의 불가능성)한다. 천사에게라면 이런 성찰과 상상은 필요하지 않다.
- (나) — 웬지 나는 선생님의 그런 세심한 안배에도 끼지 못하고 늘 가장자리에 처져 있었다. 가장자리에선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보였고 선생님이 아무리 공평하려고 노력해도 선생님 손이나 치맛자락을 잡을 수 있는 아이는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런 애들은 대개 예쁘고 똑똑하고 잘 까불었다. 시골이나 현저동에서 사귀 동무들하고는 다른 진짜 서울 아이들이었다. 나는 중심부의 그런 애들을 입을 해 벌리고 침을 흘릴 정도로 부러워하고 시기도 했지만 닮을 자신은 없었다. 사람에게 누구나 죽었다 살아나도 흉내 못 낼 것 같은 게 있는 법인데 나에게겐 그게 집단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통학 길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나를 문안에 있는 학교에 밀어 넣을 생각만 했지 같은 포래를 사귄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불행감이 된다는 걸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동무보다는 시골의 뒷동산을 더

많이 그리워했다. 오래 가뭄이 든 것처럼 생기 없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을 뿐 맨땅을 드러낸 산이 너무나 이상했다. 서울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짝 깔린 달개비꽃의 남색이 얼마나 영롱하다는 걸. 그리고 달개비 이파리엔 얼마나 고운 소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달개비 이파리의 도톰하고 반질반질한 잎살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면 노방보다도 얇고 섬세한 잎맥만 남았다. 그 잎맥을 입술에서 떼게 하면 소리가 나는데 나는 겨우 소리만 냈지만, 구슬픈 곡조를 붙일 줄 아는 애도 있었다.

나는 숨넘어가는 늙은이처럼 험벗고 정기 없는 산을 혼자서 매일 넘는 메마른 고독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추억을 만들고, 서울 아이들을 경멸할 구실을 찾았다. 사직 공원에 벚꽃이 지고 나면 이윽고 온 산에 비릿한 젖내를 풍기며 아카시아꽃이 피어났다. 아카시아꽃이 만개하자 사내아이들이 산에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냥질하듯 모질게 탐스러운 가장귀를 꺾어서 꽃을 따 먹었다.

아카시아꽃도 처음 보는 꽃이려니와 서울 아이들도 자연에서 곧장 먹을 걸 취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꽃을 통해 서였다. 잘 먹는 아이는 송이째 들고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따 먹듯이 차례차례 맛있게 먹어 들어갔다. 나도 누가 볼 세라 몰래 그 꽃을 한 송이 먹어 보았더니 비릿하고 들척지근했다. 그러고는 헛구역질이 났다. 무언가로 입가심을 해야 들뜬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 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짙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밭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길쭉질을 길이로 벗겨 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상처 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헛갈리고 있었다.

(다) — 후천성 면역에서는 림프구의 수용체를 통해 병원균을 특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다. 후천성 면역에 관계되는 림프구로는 B세포와 T세포가 있다. 림프구는 다른 혈구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골수에서 나와 심장 윗부분의 흉강에 있는 흉선으로 이동하는 림프구는 T세포로 발달한다. 반면 골수에 남아서 계속 성숙하는 림프구는 B세포가 된다. T세포와 B세포는 식균 작용이나 항체 생성과 같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쥐에 항원 X를 주입한 후 시간에 따른 항체 X의 농도를 조사하고, 4주 뒤 그 쥐에 다시 항원 X를 주입하여 시간에 따른 항체 X의 농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항원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1차 면역 반응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첫 번째로 항원이 들어 왔을 때 기억 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차 면역 반응 동안 활성화된 B세포의 일부는 기억 B세포로 분화되어 항원이 모두 제거된 뒤에도 체내에 오랫동안 남는다.

동일한 항원에 다시 감염되었을 때 기억 보조 T세포의 작용으로 기억 B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기억 B세포는 신속하게 형질 세포로 분화되어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항원이 2차, 3차 침입하면 처음보다 항체의 생성 속도가 훨씬 빠르며, 항체 생성량 또한 훨씬 많다. 대부분의 감염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방어가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번 걸린 병에 두 번 걸리지 않는 것도 면역계가 기억하여 신속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역 기억 능력 때문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라) —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

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

(마) — 매체 환경이 변화되면서 매체 언어 독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글을 찾아 읽으면서 자신이 모르는 정보를 동시에 검색하며 읽을 수 있고, 또 독서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가상의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토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기술 발달에 따른 매체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구성과 유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독서 환경에 따라 매체 언어 독서를 할 때는 매체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구성 및 유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매체 언어를 읽기 위해서는 매체를 다루는 최소한의 기술, 즉 정보 기술에 대한 이해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렇듯 특히 글과 그림, 그리고 음향적 정보들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체 언어의 독서를 융합적 읽기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영상 매체를 다루는 것은 융합 매체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호학적 지식과 그러한 다양한 매체의 처리 방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지적 능력이 요구된다. 오늘날 다매체 사회에서의 독서란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매체 생산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한편, 매체의 발달에 따라 지식의 구성 방식이나 지식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지식을 고정불변의 객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류의 지혜와 지식을 책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자 했으며, 한 번 기록된 지식과 정보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바뀔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식이란 것도 각 사회와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지식도 변화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과학 기술이 발

달한 사회에서 지식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식의 양과 종류가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축적된 모든 지식을 읽거나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다. 컴퓨터 및 인터넷과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 — 음악적 불모지까지의 통로는 어떻게 만드는가. 악곡의 진행 과정이 기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 방법은 간단하나, 어려운 것은 실천이다.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음악적 불모지라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음악적 경험을 얻을 수 없다.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난다는 말은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통로가 없다는 뜻이다. 이 통로의 개척이 음악적 경험을 위하여 첫째로 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은, 통로의 개척은 반복적 음악 청취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동일한 곡을 백 번 들어야 할 수도 있고, 천 번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천 번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천 번이라도 들어야 한다. 곡의 진행 과정이 기억될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곡 진행 과정의 기억'이라는 말이 음악적 경험에서 핵심적인 어휘가 된다. 기억되지 않는 대상에는 의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악은 시간을 타고 흐른다고 한다. 시간 속에서 음들이 여행을 한다고나 할까. 여행에는 출발점이 있고, 거쳐야 할 지점이 있고, 여행의 목적지가 있다. 또한 여행 스케줄이 있고 여행의 통로가 있다. '곡 진행 과정의 기억'을 강조하는 것은 이 통로를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 통로를 기억하였다고 해서 여행의 의미를 자동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나지 않게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통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복적 청취에 의해서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통로가 생기고 나면, 음악적 불모지의 개간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사) — 숙종 연간에 활약한 저명한 문사 김득신(金得臣)은 글을 한번 읽었다 하면 최소한 천 번을 읽었고, 제법 좋아하는 책이면 만 번 이상을 읽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사기(史記)" '백이전(伯夷傳)'은 너무 좋아한 나머지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하니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독수(讀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처음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백이전'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말하였는지 치부하고 말하였다. 3천 번을 읽는다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1억이라니! 하지만 김득신의 "백곡집(栢谷集)"에서 고문(古文) 36편을 읽고 각기 몇 번을 읽었는지를 밝혀 놓은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를 확인하고서 전에 들은 이야기가 가담항설(街談巷說)에 그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몇 번을 읽었는가를 계산하는 것은 경서와 문장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암송이었기 때문이다. 옛사람은 눈으로 훑어 읽는 안독(眼讀)이 아니라 울조를 실어 소리 내어 읽는 성독(聲讀)을 하였다. 김득신의 독서는 당연히 성독이었다. 그래서 책을 읽은 수효를 계산하는 서산(書算)을 이용하여 독수(讀數)를 헤아렸던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양독서법(歐陽讀書法)에서 "글자의 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효경(孝經)'은 1,903자, '논어(論語)'는 11,750자, '맹자(孟子)'는 30,685자, '주역(周易)'은 24,107자, '서전(書傳)'은 25,700자, '시전(詩傳)'은 39,234자, '예기(禮記)'는 99,010자, '주례(周禮)'는 45,806자, '춘추좌전(春秋左傳)'은 196,845자였다. 날마다 3백 자씩 외운다면 4년 반이면 다 마칠 수가 있다. 조금 우둔한 사람이라서 반으로 줄여 외운다 해도 9년이면 다 외울 수가 있다."라고 하여 암송해야 할 책의 자수(字數)까지 일일이 헤아려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수를 계산하였다. 읽어야 할 책이라면 아예 통째로 외우는 것을 중시하였던 시대의 공부법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사례를 찾아보면, 송(宋)의 홍매(洪邁)는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세 번이나 필사(筆寫)하였는데 금나라 종실(宗室) 한 사람은 그 책을 30여 차례나 읽었다고 한다. 조선의 유희춘(柳希春)은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암송하였고, 송익

필(宋翼弼)은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암송하였는데, 조헌(趙憲)은 그 두 저서를 모두 암송하였다고 한다. “자치통감”은 294권, “주자대전”은 124권, “주자어류”는 140권이니 인류의 저서 가운데 방대함으로 손꼽히는 것들이다. 이런 분들은 비범하기 짝이 없는 분들인데도 저다지 근면하게 공부하였다.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부법을 기록으로 남긴 학자가 적지 않지만, 나의 기억으로는, 항해(沈瀆) 홍길주(洪吉周)가 “숙수념(孰遂念)” 사부송유(四部誦惟)편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옛사람의 독서법을 소상히 엿볼 수가 있어서 인상에 깊이 남아 있다. 그는 암송해야 할 글의 목록과 읽어야 할 책의 순서, 과목, 시간, 자세를 목록으로 만들어 실천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들어 보면, “연소한 사람은 경서 전체를 외워야 하고 뽑아 외워서는 안 된다.”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기억의 역할’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학습법’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한계와 효용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 H기업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소형 승용차 A와 대형 승용차 B를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프레스 공정과 조립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산 라인 수와 인력을 고려할 때 공정별 일일 이용 가능 시간은 각각 300시간과 90시간이다. 차종 A의 경우 대당 2.5시간의 프레스 공정과 0.6시간의 조립 공정 시간이 소요되고, 차종 B의 경우 대당 5시간의 프레스 공정과 2.4시간의 조립 공정이 소요된다. 이때 차종 B에 장착되는 고성능 GPS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하루 최대 30개까지만 조달 가능하다. 자동차 생산은 프레스 공정과 조립 공정으로만 구성되고,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 A와 B는 생산되는 전량이 판매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차종 A와 B의 대당 판매 이익은 각각 160만원과 400만원이라고 한다.

[문제 3] H기업은 현재의 생산능력 범위 안에서 전체 판매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차종 A와 B의 일일 생산 대수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H기업은 차종 B에 장착되는 고성능 GPS의 가격 변화에 따라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이 변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했다. 앞에서 결정한 최적의 일일 생산 대수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차종 B의 대당 판매 이익의 범위를 구하시오. [20점]